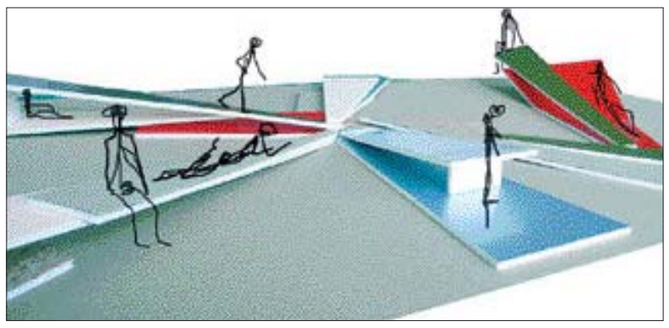
‘스타 작가’ 없이 광주비엔날레 흥행 성공할까?



제7회 광주비엔날레에 초대된 작가 중에 ‘스타작가’가 없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행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번 비엔날레에 출품된 로레스 지니 작 ‘modelwithpeople’〈위〉, 만들라 루터 작 ‘S-pace Journey’

인지도 떨어져 관객 동원 우려 목소리
현대미술과 소통 프로그램 마련 시급

제7회광주비엔날레(9월5~11월9일)의 참여작가 선정이 마무리됐지만 인기 작가가 없고, 한 번 선보인 전시회를 다시 보여주는 등 흥행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비엔날레를 미술 전문가의 ‘잔치’가 아닌 ‘대중 참여 행사’로 만들기 위해선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의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작가 선정은 관람객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실험적인 작품을 나열해 관람객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2일 섹션별 참여작가 160명을 선정했다. 대부분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은 젊은 작가들이다. 과거 광주비엔날레가 관람객들을 위해 백남준씨 등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작가와 작품을 일부 포함시켰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5회광주비엔날레의 예술총감독을 맡았던 이용우씨는 “한스 하케 등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 작가는 3~4명뿐이다”면서 “‘주제’가 없어 작가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텐데 하나로 아우르는 ‘미학적인 고리’도 없어 관람객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길 위에서 (On the Road)’ 섹션에 초대된 38개의 전시회도 이미 세계 주요도시에서 열렸기 때문에 외국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기에는 흥미가 떨어진다.

미술평론가 윤진섭씨는 “세계의 유명 전시회를 모은 기획은 참신하지만 자칫 의미 없는 ‘재탕’ 수준에 머물러 흥미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지역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 일본(35명), 한국(28명) 등 아시아 지역 작가들이 전체(160명)의 절반(80명)을 차지했다. 이때문에 아시아 작가 중심이었던 제6회광주비엔날레(2006년)와 차별성도 없고, 세계의 현대 미술 흐름을 읽기에도 한계가 있다.

한국 작가들도 수만 많았지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젊은 작가 위주여서 국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지도 미지수다.

세계적으로 60여 개의 비엔날레가 난립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광주비엔날레의 관람객은 갈수록 줄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관람객은 제1회 때 163만4천명을 유치했지만 2회 90만8천명, 3회 61만4천명, 4회 55만6천명, 5회 51만8천명으로 감소했다.

정준모 고양문화재단 전시감독은 “이미 작가 선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난해한 현대 미술을 감상해야 할 관람객을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대미술과 교감할 수 있는 관람객 대상 미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예고 무용부 전국대회 휩쓸어

제 53회 호남예술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주예고(교장 윤영월) 무용부가 전국 대회에서 잇따라 수상, 예향 광주의 위상을 높였다.

광주예고는 호남예술제 현대무용 군무와 독무 최고상(이가영)을 수상했으며 한국무용 독무 등에서도 개인상을 수상했다.

광주예고는 또 지난 21일 열린 제37회 세종대콩쿠르에서는 호남예술제 최고상 수상작인 ‘세팅’으로 현대무용 군무와 한국무용 군무에서 대상을, 서영주양 등 8명이 개인상을 수상했으며 18회 성균관대학교 경연에서도 한국무용 군무팀이 대상을 받았다.

또 지난 17일 열린 한성대콩쿠르에서는 9명이 입상했으며 제39회 한국무용협회경연에서도 개인상을 수상하는 등 낭보를 전했다. 그 밖에 제11회 광주여대 콩쿠르에서는 종합우승과 공로상(김옥희)을 수상했고 제33회 조선대경연에서도 단체와 개인상을 받았다.

특히 호남예술제에서 입상한 성용진·류진경(3년)양은 세종대콩쿠르 금상과 한성대콩쿠르 특상 등을 휩쓸며 두각을 나타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오세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만화 등 전문인력 양성 나서 전액 무료…해외 연수 기회

스토리텔링이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야기’(Story)와 ‘말하기’(Telling)의 합성어인 스토리텔링은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모바일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서사 구조가 살아있는 ‘이야기’를 입혀 기존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문화아이콘이다.

특히 최근에는 관광 자원 등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문화 원형을 조사·발굴,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속속 진행되고 있고 문화 뿐 아니라 전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경제계. 품질·기술·가격 경쟁력에 집중했던 기업들이 감동과 재미를 가미한 ‘이야기’를 마케팅에 도입, 성공을 거두면서 ‘이야기를 팔아라’는 인식은 불문율이 됐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는 지난해부터 ‘스토리텔링’을 ‘광주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왔다. 광주시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공동으로 ‘스토리텔링아카데미’를 운영, 50여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해 냈고 학술 세미나와 워크숍 등도 개최했다.

진흥원 등은 올해도 ‘스토리텔링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을 시작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스토리텔링 아카데미는 무엇보다 탄탄한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만화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 ▲게임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기간은 6월 9일부터 2009년 1월까지(총 92시간)다. 강의는 매주 월·수·금 오후 7시~10시까지 광주영상예술센터 등에서 열리며 원서 마감은 오는 30일까지다.

강사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한창완(세종대 교수), 박인하(만화평론가·청강문화산업대 교수), 한혜원(이화여대 교수), 박기수(한양대 교수), 김영재(한양대 교수), 이영수(판타지소설 작가), 신용윤(엠게임 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담당한다.

또 단순한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을 멘토로 연결, 후원자 역할을 하도록 하며 창작소재 개발을 위한 남도 답사, 공모전 등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성적 우수자에게는 문화 창작 해외 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지난해 참가자들은 일본 오사카·나라 등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문의 062-350-244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7개월 과정으로 스토리텔링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지난해 수강생들의 오사카 연수 모습.

광주 유치원생 2천8명 그림 띄우기 퍼포먼스

광주비엔날레 D-100

광주지역 유치원생 2천8명이 제7회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림을 그려 하늘로 띄우는 퍼포먼스를 한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26일 “오는 6월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제7회광주비엔날레 D-100일 기념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유치원생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주제로 대형 현수막(38×14m)에 그림을 그린 뒤 애드벌룬에 현수막을 매달아 띄우게 된다. 또 행사가 끝나면 현수막을 제7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으로 외벽에 부착할 예정이다.

이밖에 D-100일 기념행사에는 초등학생 밴드 ‘페니키’의 축하 공연도 곁들여 진다.

광주비엔날레 재단 재단 관계자는 “지역 단체장과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석하는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어린이들과 부모가 마음껏 놀수 잇는 D-100일 기념행사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젊은 작가들 ‘부산 나들이’

류재웅·김해성·신철호 등 15명 단체전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부산 나들이에 나선다.

서양화가 류재웅, 김해성, 신철호, 조근호, 고근호, 안태영, 이민하, 이이남, 안태영, 이정록, 정운학씨 등 15명은 오는 30일까지 부산 광안리 블루홀 갤러리에서 단체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이들 작가들은 ‘광주 NOW’를 주제로 서양화, 조각, 사진, 미디어아트를 통해 광주 지역 미술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류씨는 산과 마을이 어우러진 풍경을 진한 필치로 그린 ‘적각마을’을, 조씨는 자동차가 지나가는 도심의 풍경을 간결하게 묘사한 ‘도시’를 각각 출품한다.

또 김해성씨는 강렬한 블루톤의 색감과 발랄한 리듬감을 살린 ‘숲의 친구들’을, 김용안씨는 안개 자욱한 산의 모습을 단순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담아낸 담아낸 ‘untitled’을 선보인다.

김해성 작 ‘숲의 친구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